

##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인플레이션 현황 및 전망

한선이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부연구위원 (seonihan@kiep.go.kr, 044-414-1345)

김예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kimyj@kiep.go.kr, 044-414-1116)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mjjeong@kiep.go.kr, 044-414-1225)

박규태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ktpark@kiep.go.kr, 044-414-1293)

## 차례

1. 최근 아프리카 지역 인플레이션 현황
2. 아프리카 지역 인플레이션의 원인 분석
3. 각국의 대응 동향 및 인플레이션의 경제·사회적 영향
4.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및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프리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항목 중 특히 식량 및 수입 물가 상승의 비중이 높음.
  - 2022년 아프리카 내 일부 원자재 수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1/3 이상의 국가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화됨.
  - 2022년 특히 소비 바스켓 내 비중이 큰 식량 가격과 수입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견인함.
- ▶ 아프리카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 기후변화, 분쟁 등과 같은 국내 요인에 국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대외 요인이 결합하여 심화되고 있음.
  - 최근 들어 아프리카 지역 인플레이션에서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가격 변동 등 대외 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별·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물가상승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 인플레이션은 2023년 하반기부터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나, 전 세계적인 건축 강화와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아프리카에서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채무 부담이 큰 폭으로 커지고 있어 부채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에서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물가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식량 불안 인구나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 불안이 증대할 우려가 있음.
  -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의 경기회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늦어지는 가운데 여러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물가 안정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임.
  -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가계의 실질임금 감소 및 구매력 저하로 빈곤층과 식량 불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생계비 증가에 대한 불만으로 시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 불안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 한국 정부와 기업은 아프리카의 경제상황 변화와 정치적·사회적 불안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 및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경제의 파편화에 따라 한국도 외교 및 경제협력 다변화를 목표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확대가 필요함.
  - 한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차원에서 아프리카의 식량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식량 원조와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관련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세계경제의 파편화와 그린 전환 가속화 움직임에 따라 외교 및 경제협력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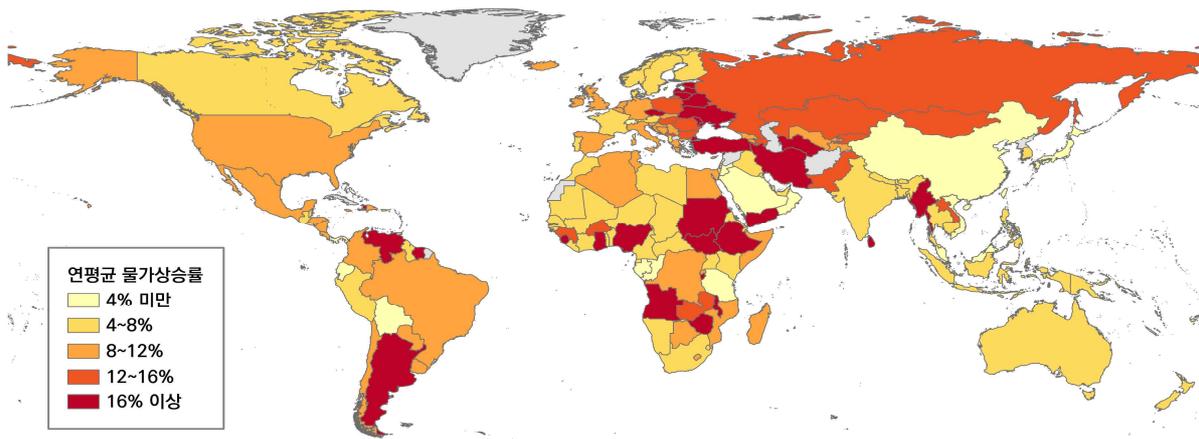
# 1. 최근 아프리카 지역 인플레이션 현황

## 가. 지역별 인플레이션 현황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고, 특히 러시아 접경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음.

-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동유럽·코카서스 지역(벨라루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몰도바, 리투아니아)과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지역(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튀르키예)의 물가상승률 심화가 두드러짐.
  - 튀르키예에서는 2021년 말부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고, 2022년 1월 48.7%이던 물가상승률이 4월 70%, 11월 84.39%까지 상승함.
- 북미, 동아시아, 유럽(동유럽 제외) 지역의 물가상승률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상승폭은 크게 증가함.
- 2022년 아프리카 내 80% 이상의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5%를 넘고, 1/3 이상의 국가에서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sup>1)</sup>
  - 서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가나, 시에라리온, 동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에서 물가상승이 두드러짐.
  - 수단, 남수단,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앙골라의 경우에는 러-우 전쟁 발발 이전에도 물가상승률이 높았음.

그림 1. 연평균 물가상승률(2022년 전망치)



주: 2022년 연평균 물가상승률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데이터(검색일: 2022.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아프리카의 연평균 물가상승률 중위값은 2021년 4.5%에서 2022년 8.0%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국가가 많아 연말 기준 물가상승률 중위값은 8.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sup>2)</sup>

1)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기준임. IMF(2022),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2 참고하여 저자 계산.

- 아프리카에서는 러-우 전쟁 이후 2022년 물가상승률 수치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으며, 2021년 대비 물가상승률 증가 폭도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큼.
- 북아프리카에서는 2022년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으며, 연말 기준 2022년 물가상승률 증윳값은 9.4%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비해 높음.
  - 연평균 물가상승률 증윳값도 2021년 4.5%에서 2022년 8.1%로 상승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비해 변동 폭이 큼.
  -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국가는 이집트로, 2022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8.5%로 예측됨.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2022년 물가상승률 증윳값은 연평균 기준 8.0%, 연말 기준 8.5%이며, 국가별 편차가 큼.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한 국가는 짐바브웨로,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284.9%이며, 이어서 수단(154.9%), 에티오피아(33.6%), 가나(27.2%), 시에라리온(25.9%) 순임.
  - 2021년 기준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5개국은 수단, 짐바브웨, 남수단, 에티오피아, 앙골라였는데, 2022년에는 앙골라와 남수단의 물가는 다소 진정된 반면 가나와 시에라리온에서 물가가 급등함.

그림 2. 아프리카 물가상승률 추이(2013~23년)



주: '연평균'은 연평균 물가상승률 증윳값이며, '연말'은 연말 기준 물가상승률 증윳값임. 2021년 이후 수치는 IMF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북아프리카는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5개국을 말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검색일: 2022. 12. 19) 바탕으로 저자 계산.

## 나. 아프리카 국가별 인플레이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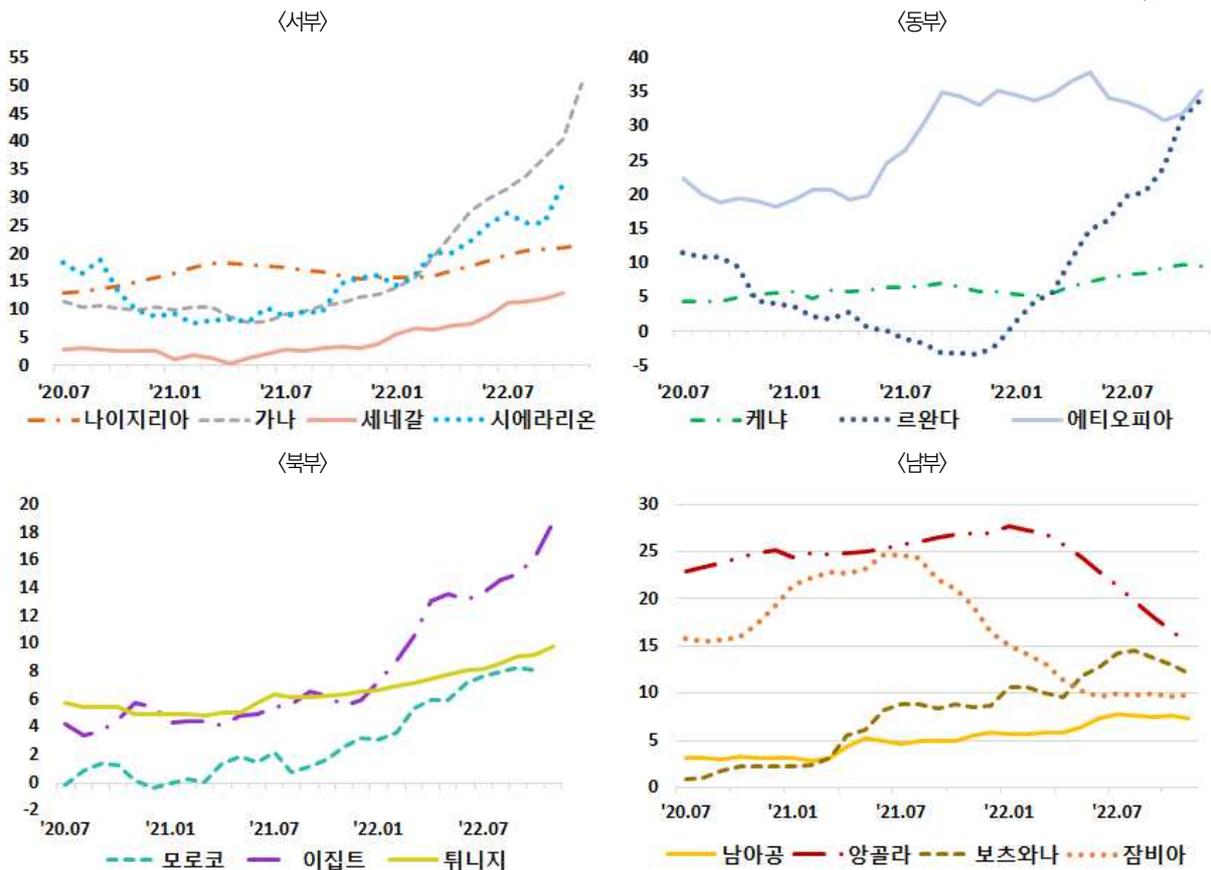
- 일부 원자재 수출국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지역 전반적으로 2022년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졌으며, 특히 동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국가가 많음.
- 서부 지역에서는 가나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하며, 나이지리아에서는 2021년 하반기에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다 2022년 들어 상승하였고, 최근 15년간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해온 세네갈에서도 물가가 크게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은 11월 기준 가나 50.3%, 나이지리아 21.5%이며, 10월 기준 시에라리온은 32.2%, 세네갈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13%까지 상승함.<sup>3)</sup>

2) 2022년 수치는 전망치임. IMF WEO Database(검색일: 2022. 12. 19).

- 동부 지역에서는 분쟁 중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고물가가 지속되는 한편, 물가상승률이 2021년 말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르완다에서도 물가가 급등함.
  - 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은 에티오피아 35.1%, 르완다 33.8%이며, 케냐에서는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9.5%를 기록함.
- 북부 지역에서는 이집트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 2% 이하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보이던 모로코에서도 최근 물가가 크게 상승함.
  - 이집트의 11월 물가상승률은 18.7%, 튀니지의 경우 9.8%이며, 모로코의 10월 물가상승률은 8.1%임.
- 남부 지역 내 광물 및 금속 수출국의 경우 원유, 광물, 금속의 국제 가격 상승으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통화 가치가 상승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하지 않았음.
  - 산유국인 앙골라의 경우 유가 급등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오히려 감소하여 2022년 1월 20%를 상회하던 물가상승률이 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15.2%로 하락함.
  - 잠비아에서는 2022년 상반기부터 물가상승률이 하락했고, 남아공과 보츠와나에서는 2022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다소 심화되다 하반기에 진정 국면으로 들어섬.

그림 3. 아프리카 권역별 주요국의 월별 인플레이션 추이(2020년 7월~2022년 11월)

(단위: %)



주: 모든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임.  
자료: 각국 통계청.

3) 가나의 경우 10월에서 11월 사이 물가 인상폭이 9.9%p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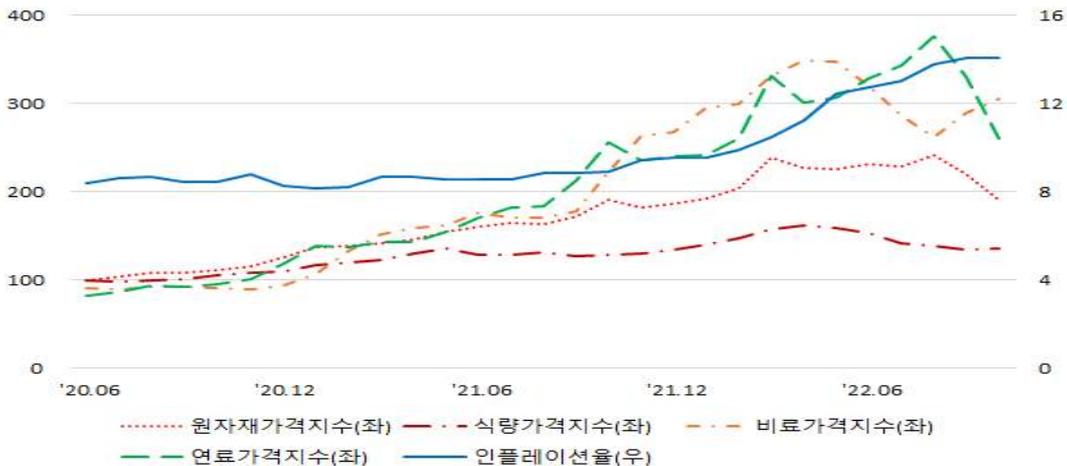
## 2. 아프리카 지역 인플레이션의 원인 분석

### 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

-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및 식량 가격 상승이 최근 글로벌 및 아프리카 인플레이션 심화의 주원인임.<sup>4)</sup>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에서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민간 소비가 증가한 반면,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병목에 더하여 러-우 전쟁 이후 원자재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중됨.
    - 글로벌 원자재가격지수와 연료가격지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후반부터 상승했으며,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2년 8월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각각 376%, 241% 증가한 수치임.
    - 글로벌 식량가격지수와 비료가격지수도 유사한 추세로 증가하여 2022년 4월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6년 이후 각각 162%, 349% 증가함.

그림 4. 2020~22년 글로벌 원자재가격지수와 아프리카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2016=100 기준좌), %(우)



주: 원자재가격지수에는 연료와 비연료로 구분되는 모든 종류의 원자재를 포함한 가격지수를 나타냄. 연료가격지수에는 원유, 석탄, 천연가스, 프로판올을 포함함. 식량가격지수에는 음료를 제외한 곡류, 채소류, 육류, 어패류 등을 모두 포함함. 비료가격지수에는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륨비료를 포함함.

자료: IMF(2022), IMF Primary Commodity Prices; Bloomberg(2022), Africa CPI Forecast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8).

-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아프리카 내 식량 및 에너지 가격도 급등함.
  - 아프리카에서는 국내 공급, 통화정책, 환율 등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은 편인데, 최근 들어 국제 경제로의 편입과 함께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가격과 같은 대외 요인의 중요성이 커짐.<sup>5)</sup>

4) IMF(2022), Regional Economic Outlook Analytical Note: Sub-Saharan Africa, p. 1; WB(2022), Africa's Pulse, p. 2.

5) Nguyen *et al.*(2015), "On the Drivers of Inflation in Sub-Saharan Africa," IMF Working Paper 15/18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 2020~22년 기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주요 곡물(밀, 쌀 등) 가격은 평균 23.9% 증가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sup>6)</sup>
- 아프리카 내 2022년 7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62% 상승함.<sup>7)</sup>

■ OECD 회원국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임.

- OECD 회원국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022년 3월 9%에서 10월 11%까지 상승했으며, 에너지 부문의 물가 상승 압력은 6월 이후 다소 약화된 반면 식품 부문의 물가는 진정되지 않고 있음.
  - 에너지 물가상승률은 러-우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7%p 상승하여 34%를 기록한 이후 6월 41%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점차 하락하여 10월에는 28%를 기록함.
  - 식품 물가상승률의 경우 3월 10%, 6월 13%, 10월 16%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미국의 경우 2022년 6월 42%까지 상승했던 에너지 물가상승률이 10월에는 18%까지 하락하였음.<sup>8)</sup>
- 반면 유럽의 영국, 이탈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등에서는 에너지 부문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sup>9)</sup>
  - 2022년 10월 기준 에너지 물가상승률은 독일이 44%, 영국이 59%, 에스토니아가 60%, 이탈리아가 71%를 기록함.
  - OECD 회원국 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튀르키예에서는 2022년 6월 에너지 물가상승률이 172%(물가상승률 79%)까지 치솟았으며, 10월에도 137%(물가상승률 86%)에 달함.
-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러-우 전쟁 발발 직후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다소 낮아진 상황임.
- 식품 및 에너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영향이 2022년 초반 큼 지배적인 상황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추세임.<sup>10)</sup>

■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전반적으로 식량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에너지 부문 물가상승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에너지보다는 식량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남.<sup>11)</sup>
  - 2021년 하반기 이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식량 가격은 10% 이상 상승했고, 식량 물가상승은 취약국 인플레이션의 2/3, 그 외 국가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절반을 차지함.<sup>12)</sup>

6) IMF(2022), "Africa Food Prices Are Soaring Amid High Import Relia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5).

7) Relief Web(2022), "Implications of Ukraine Conflict on Food Access and Availability in the East Africa Region, Update #5, August 20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5).

8) 북미를 포함한 미주 지역은 식량과 에너지 부문의 영향이 유사하나 식량 가격 상승의 영향이 다소 큰 것으로 집계됨.

9) 스페인과 헝가리의 경우 예외적으로 식품 물가상승률이 에너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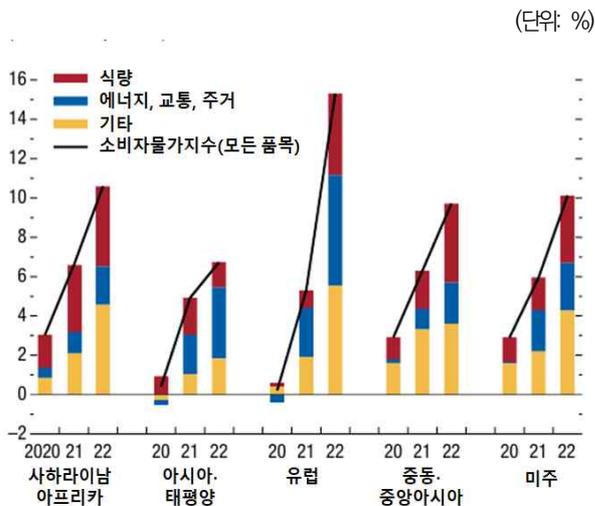
10) IMF(2022. 10), World Economic Outlook, pp. 4-5.

11) 단, 남아공의 경우 물가 추이가 OECD 회원국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물가상승률이 3월 24%에서 6월 31%까지 올랐다가 10월에는 다시 20%까지 하락하였음.

12) IMF(2022), "Africa's Inflation Among Region's Most Urgent Challeng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27).

- 아프리카는 식량 소비 비중과 주요 곡물의 수입 의존도(밀 65.2%, 옥수수 19.7%)가 높아 국제 곡물시장 가격 변동성에 취약함.<sup>13)</sup>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물가 구성요소의 40%를 식품이 차지하고, 주곡(밀, 쌀, 옥수수 등) 순수입국이 많기 때문에 국제 식품 가격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음.<sup>14)</sup>
  - 권역별로 밀 수입 의존도를 살펴보면 북부(62.0%), 동부(53.6%), 서부(97.8%), 남부(54.9%) 지역의 국내 밀 공급량에서 최소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수출 증대를 위해 상품작물(커피, 코코아 등)의 생산을 늘리고 있어 밀 등 주식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sup>15)</sup>
  - 북부 아프리카의 경우 옥수수 수입 의존도(69.9%)가 높아 옥수수 가격 상승에 취약하고, 남부 아프리카는 쌀 수입 의존도(86.9%)가 높아 쌀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sup>16)</sup>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가뭄 등 자연재해와 분쟁도 공급 차질을 일으켜 식량 가격을 상승시킴.<sup>17)</sup>
-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에너지 관련 보조금 지원이나 가격 통제정책을 취하고 있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sup>18)</sup>

그림 5. 지역별 인플레이션 구성 요인



자료: IMF(2022.10), World Economic Outlook, p. 4에서 재인용.

그림 6. 아프리카의 주요 곡물 수입 의존도 (2016~2020년 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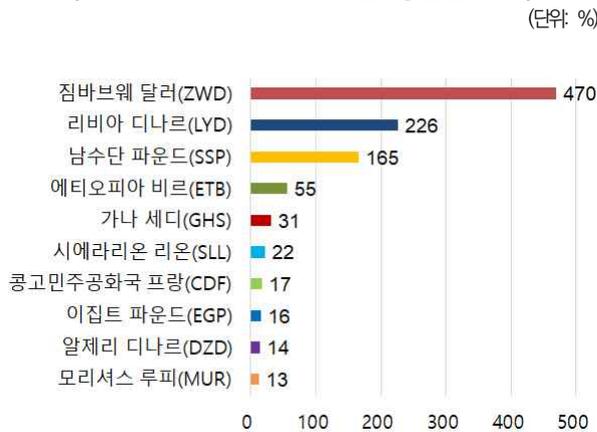


주: 수입 의존도는 공급물량(생산량+비축량+수입-수출) 대비 수입 규모 기준임.  
자료: FAOSTAT을 바탕으로 저자 계산.

13) Okou, Spray, and Unsal(2022), "Africa Food Prices Are Soaring Amid High Import Relia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5).  
14) IMF(2022. 10),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p. 5.  
15) DW(2022), "Why is Africa dependent on imported grai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27).  
16) 남아공에서는 중산층 증가가 식품 소비의 패턴을 변화시켜 쌀 소비 증가로 이어졌고, 지난 10년간(2010~2020년 기준) 쌀 소비량이 매년 약 3%씩 증가하여 2020년 100만 톤에 달했으며, 국내 쌀 공급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함.  
17) Okou, Spray, and Unsal(2022), "Staple Food Prices in Sub-Saharan Africa," IMF Working Paper.  
18) IMF(2022), Regional Economic Outlook Analytical Note: Sub-Saharan Africa,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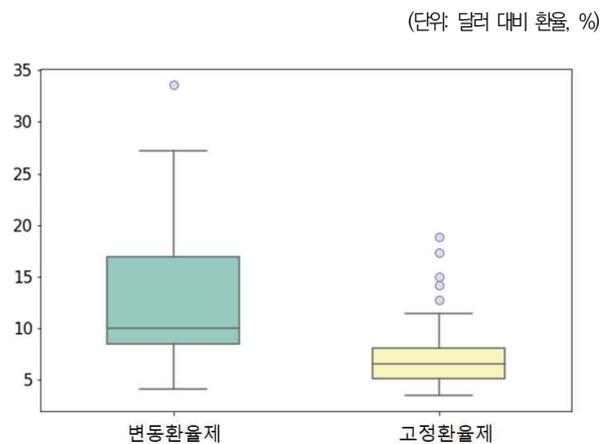
- 또한 아프리카 각국에서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중됨.
  - 전 세계적인 긴축정책으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통화주권이 약한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수입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하고 있음.
    - 아프리카 10개국의 통화가치(2020년 1/4분기 대비 2022년 1/4분기 환율 변동 기준)가 미국 달러 대비 10% 이상 하락하였으며, 특히 짐바브웨(470%), 리비아(226%), 남수단(165%), 에티오피아(55%)의 통화가치가 폭락함.
  - 아프리카에서는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변동성이 높아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이 국내 식량 가격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높음.<sup>19)</sup>
  - 근원 인플레이션의 경우 교역재(Tradable goods)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에티오피아와 가나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 수요 요인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sup>20)</sup>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소비 바스켓(consumption basket) 내 교역재의 비중은 29%로, 이는 식량 다음으로 큰 수치임.<sup>21)</sup>
  - 전반적으로 최근 인플레이션은 고정환율제 국가에 비해 변동환율제 국가에서 심화되고 있음(그림 8 참고).
    - 페그제 등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2022년 연평균 물가상승률 증릿값은 6%인 반면 변동환율제 국가들의 증릿값은 10%에 달하며, 변동환율제 국가간 물가상승률 편차도 큼.

그림 7. 아프리카 상위 10대 통화가치 등락률  
(2020년 대비 2022년 환율 증감률 기준)



주 1) 2020년 1/4분기 대비 2022년 1/4분기의 달러 대비 환율 증감률임.  
 2) 기니, 말라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수단 등 IMF에서 환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는 제외함.  
 자료: IMF(2022),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27).

그림 8. 아프리카 환율제도별 인플레이션 현황



주: 2022년 연평균 물가상승률 기준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00%를 상회하는 짐바브웨와 수단은 제외함. 점 표시는 이상치(outlier)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검색일: 2022. 12. 19) 바탕으로 저자 계산.

19) Okou, Spray, and Unsal(2022), "Africa Food Prices Are Soaring Amid High Import Relia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5).

20) IMF(2022), Regional Economic Outlook Analytical Note: Sub-Saharan Africa, p. 1.

21) *Ibid.*, p. 4.

## 나. 아프리카 권역별 인플레이션 요인

### 1) 북부 아프리카

■ 북부 아프리카의 경우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곡물 및 곡물 가공품을 중심으로 식량 가격이 크게 상승함.<sup>22)</sup>

-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에서 밀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데 비해 자급률은 낮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10~19년 기준 연평균 밀 소비량은 이집트가 2,350만 톤, 모로코가 1,543만 톤, 알제리가 1,443만 톤이며, 이 세 국가가 아프리카 전체 밀 소비량 1, 2, 3위국에 해당함.
  - 2015~19년 기준 세계 평균 밀 자급률은 86%인데, 북부 아프리카의 자급률은 이집트 56%, 모로코 72.8%, 알제리 44.3%에 불과함.<sup>23)</sup>
- 대러시아 밀 수입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이집트로, 2015~19년 사이 이집트의 누계 밀 수입량에서 57.5%에 달하는 총 3,313만 톤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밀 수입량을 합치면 이집트 총 밀 수입량의 75%에 달함.
  - 이집트의 경우 옥수수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2015~19년간 총 옥수수 수입량의 28.1%인 1,195만 톤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함.
- 모로코의 경우 전체 밀 수입량의 20.2%를 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하며, 2015~19년간 우크라이나로부터 422만 톤의 밀을 수입하였음.
  - 2015~19년 누계 기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로코의 총 밀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임.
-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집트의 경우 식품 물가상승률이 1월 12.5%에서 4월 26%까지 상승했으며, 모로코의 경우 4.2%에서 9.4%까지 상승함.

■ 이집트에서는 2022년 상반기에 국제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고, 하반기에는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이후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더욱 상승하고 있음.

- 환율을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오던 이집트 정부는 10월 외환시장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 환율에 맞게 환율 변동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후 달러 대비 이집트 파운드화(EGP) 가치 급락으로 인해 2022년 11월 물가상승률이 18.8%를 기록함.<sup>24)</sup>
  - 세계적으로 식량 물가가 점차 안정되어가는 상황임에도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식품 물가가 대폭 상승하여 11월 식품 물가상승률은 29.9%, 비식품 부문 물가상승률은 13.8%를 기록하였음.
- 단기적으로 이집트 파운드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향후 수개월간 고물가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에는 2022년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sup>25)</sup>

22) 본 문단의 모든 수치는 FAO STAT DB 데이터(검색일: 2022. 3. 7)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3) 자급률은 국내 공급(생산+비축+수입) 대비 생산량 및 비축량의 총합 비중임.

24) 이집트는 2016년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으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강도가 높아 (고정환율제 국가와 유사하게) 환율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왔으나, 2022년 10월 IMF의 권고에 따라 환율시장 내 변동성을 더 허용하겠다고 밝힘.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및 수입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외환 유출이 증가함.
- 외환보유고가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대응책을 발표하지 않아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추가적 자본 유출은 달러 대비 환율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음.

■ 모로코는 높은 수입 의존도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 2022년 이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 모로코는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순수입국(net-importer country)으로 원유 및 식품 등 가격 변동이 심한 상품들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국제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됨.
- 물가상승률이 0~2% 수준에서 유지되던 모로코는 2022년 물가가 급등하였으며, 특히 9월에는 물가상승률이 8.3%, 식품 물가상승률은 15.1%까지 오름.
- 모로코 디르함화(MAD)는 지속적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모로코 디르함화는 유로와 달러에 6:4의 비율로 페그(peg)되어 있는데, 2022년 유로 대비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디르함화의 통화가치가 2022년 1~10월 사이 달러 대비 12.5% 하락함.<sup>26)</sup>
- 2023년에는 물가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4.1%까지 하락할 전망이다.<sup>27)</sup>

## 2) 서부 아프리카

■ 농업 분야의 비중이 높고 비료 수입 의존도 또한 높은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비료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서부 아프리카 국가 상당수에서 비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비료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표 2-1 참고).
  - 서부 아프리카 지역 8개국이 질소비료의 40% 이상을 수입에 의존했으며 가봉,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함.
  - 인산비료와 칼륨비료 수입 의존도는 질소비료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토고, 기니비사우, 가나 등에서는 높은 편임.
- 러-우 전쟁 이후 비료 가격이 급등하였고, 서부 아프리카에서 칼륨비료 수입량의 82%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의존하고 있어 이 지역의 물가상승 압박을 키움.<sup>28)</sup>
  - 글로벌 비료 가격은 2021년부터 빠르게 상승하여 2022년 4월에 2019년 대비 337% 상승했으며, 그중 서부 아프리카에서 수입량이 많은 질소비료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아 2022년 3월 기준에는 2019년 대비 434% 상승함.

25) Oxford Economics(2022. 12. 13), "Country Economic Forecast Egypt,"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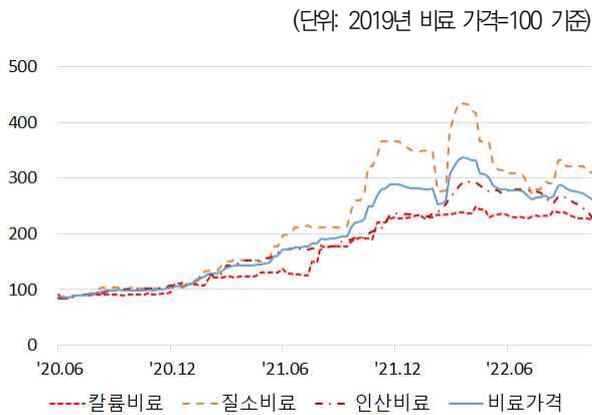
26) Oxford Economics(2022. 11. 28), "Country Economic Forecast Morocco," p. 3.

27)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검색일: 2022. 12. 19).

28) Bouet, Laborde, and Traore(2022), "West Africa Faces Mixed Food Security Impacts from the Russia-Ukraine Confli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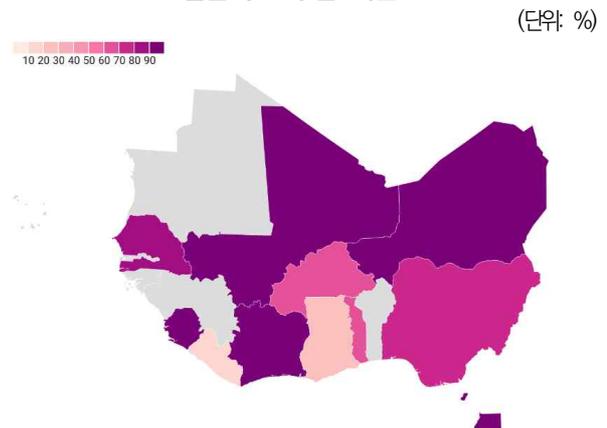
- 이 외에 인산비료와 칼륨비료의 가격도 각각 최대 240%, 287% 상승함.
- 비료 가격이 급등할 경우 경영 적자를 피하고자 농가에서 농작물 재배 면적을 줄여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sup>29)</sup>

그림 9. 국제 비료가격지수 추이



자료: IFPRI(2022), "Food Export & Fertilizer Restrictions Track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9).

그림 10. 서부 아프리카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칼륨비료 수입 의존도



주: 지도상 색이 어두울수록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데이터가 없는 지역임.

자료: Feed the Future(2022), "West Africa Faces Mixed Food Security Impacts from the Russia-Ukraine Confli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9).

표 1. 서부 아프리카의 비료 수입 의존도

(단위: %)

순위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륨비료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가봉	71.2	토고	69.4	토고	32.1
2	가나	64.3	가나	32.2	가나	22.2
3	코트디부아르	62.9	가나	22.4	가나	17.4
4	토고	53.3	코트디부아르	14.3	베냉	9.1
5	부르키나파소	49.3	나이지리아	13.4	감비아	5.4
6	나이지리아	47.1	시에라리온	13.0	시에라리온	4.7
7	가나	44.0	베냉	9.4	나이지리아	3.1
8	말리	41.4	감비아	5.8	부르키나파소	2.6

자료: IFPRI(2022), "Food Export & Fertilizer Restrictions Track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9).

- 말리 내 군사 쿠데타 이후 출범한 과도정부가 서부 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의 금수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내린 역내 수출금지가 서부 아프리카의 식량 가격 상승 압박을 가중하였음.<sup>30)</sup>

29) DW(2022), "How Russia's invasion of Ukraine rocked commodity marke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8).

30) Feed the Future(2022), "West Africa Faces Mixed Food Security Impacts from the Russia-Ukraine Confli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9).

- 말리 군부는 2020년 8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ECOWAS 측에 '2022년 2월 선거를 치러 민정 이양을 돕겠다'고 약속했으나, 선거 직전인 2022년 1월 돌연 선거를 2025년 12월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였음.<sup>31)</sup>
- ECOWAS는 '불법적인 군사 과도정부가 말리 국민을 인질로 잡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하며 말리에 대한 금수조치(육로·항로 등 모든 국경 폐쇄, 비필수적 금융거래 중단, ECOWAS 시중은행에 있는 말리 국가자산 동결, 말리 주재 대사 소환 등)를 내림.<sup>32)</sup>
- 서부 아프리카의 가축 및 육류 공급국인 말리가 이에 대응하여 가축 및 육류의 역내 수출을 중단하여 서부 아프리카의 육류 가격 상승 압박이 높아짐.
  - 말리의 보복조치 이후 세네갈 다카르의 육류 가격이 25~30%가량 상승함.<sup>33)</sup>

**■ 가나는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해 물가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해외 투자자본 유출로 환율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됨.<sup>34)</sup>**

- 가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부 재정적자 및 부채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 수입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정부의 재정 여력은 더욱 감소함.
  - 식품, 정제유 등 주요 상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주요 수출품인 금과 원유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수입액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재정 여력이 악화되자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자본 유출로 인해 세디화(GHS) 가치가 크게 하락했으며, 환율 상승이 다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함.
  - 10월에 가나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세디화 가치가 급락하였고, 물가 상승률은 10월 40.4%, 11월 50.3%까지 상승함.
- 정부가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등 각종 세제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세금 인상분이 물가에 반영되면서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김.

**■ 나이지리아는 높은 수입 의존도와 식량 수급 불안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함.**

- 나이지리아는 식량 공급망 불안, 나이라화(NGN) 약세로 인한 수입액 증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로 물가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2022년 11월 물가상승률은 21.5%로 17년래 최고치를 기록함.<sup>35)</sup>
- 품목별로는 식품 물가상승이 물가상승률을 견인하고 있으며, 빵, 시리얼, 구근류 작물(감자, 양 등), 식품 가공품 등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11월 식품 물가상승률은 24.1%를 기록함.<sup>36)</sup>
  -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식품가격 상승이 국내 식품시장으로 전이되는 정도가 큰 편임.

31) CNN(2022), "West African nations sever links with Mali over election dela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26).

32) 연합뉴스(2022),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 말리 쿠데타 정권과 단교…말리도 맞대응(종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9).

33) Feed the Future(2022), "West Africa Faces Mixed Food Security Impacts from the Russia-Ukraine Confli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9).

34) Oxford Economics(2022. 12. 12), "Country Economic Forecast Ghana"; IHS Markit(2022. 11. 15), "Ghana Economic Outlook."

35)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NBS)(2022. 10), "Consumer Price Index September 2022," p. 7.

36)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NBS)(2022. 12), "Consumer Price Index November 2022," p. 13.

- 나이지리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작물의 경우 비료가격 상승, 통화 약세 등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있음.<sup>37)</sup>
-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 환율 변동성 제한조치 등을 실시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sup>38)</sup>

### 3) 동부 아프리카

■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농업 생산성이 침체되고 곡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 동부 아프리카 식품 바스켓(food basket)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약 50% 가까이 상승함.<sup>39)</sup>
  - 동부 아프리카 내 평균 식품 바스켓 가격은 19.2달러였으며, 소말리아(31.8달러), 남수단(27.3달러), 수단(26.5달러) 순으로 가장 높은 식량 가격을 기록함.<sup>40)</sup>
-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에서는 국제 식량 및 상품 가격과 국내 농업 생산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sup>41)</sup>
- 동부 아프리카 내 ‘아프리카의 뿔(The Horn of Africa)’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음.<sup>42)</sup>
  -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우간다 등 대부분 지역에서 최근 5년간 우기에도 비가 거의 오지 않았고, 특히 해안가 인근 지역의 가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2-6 참고).
  -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2,000만 명의 동부 아프리카 지역민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이 극심한 빈곤, 식량 불안, 급성 영양실조 등을 겪고 있음.
- 아프리카의 뿔 지역 내 주요 생산 곡물인 옥수수의 생산량은 기후변화로 인해 성장세가 더뎠으며, 식량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수입을 확대하고 있음.<sup>43)</sup>
  - 2022년 에티오피아에서는 지역별로 40~85%의 경작지가 가뭄의 영향을 받았고, 소말리아에서는 70% 정도의 경작지가 영향을 받아 2022년 수확량은 평년의 40~6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됨.<sup>44)</sup>
  -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에서는 2022년 2월 옥수수 가격이 지역에 따라 전년대비 60~85% 상승하였고, 케냐에서도 지역의 가뭄 피해 정도에 따라 옥수수와 콩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대비 각각 10~50%, 6~30% 상승함.<sup>45)</sup>
  - 2016~20년 기간 이 지역의 인구는 에티오피아(1,430만 명 증가), 케냐(590만 명 증가), 소말리아(220

37) IMF(2022. 7), “Staple Food Prices in Sub-Saharan Africa: An Empirical Assessment,” p. 8.

38) Oxford Economics(2022. 12. 13), “Country Economic Forecast Nigeria,” p. 4.

39) 식품 바스켓에는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주곡(밀, 쌀 등), 콩, 식용유, 설탕,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 등이 포함됨. WFP(2022), “Implications of the Conflict in Ukraine on Food Access and Availability in the East Africa Reg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26).

40) WFP(2022), “Implications of the Conflict in Ukraine on Food Access and Availability in the East Africa Reg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26).

41) Durevall and Sjö(2012), “The dynamics of inflation in Ethiopia and Kenya,”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Ruzima and Veerachamy(2015), “A Study on Determinants of Inflation in Rwanda from 1970-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and Development Studies*, 4(4), pp. 390-401.

42) WB(2022), *Africa’s Pulse*,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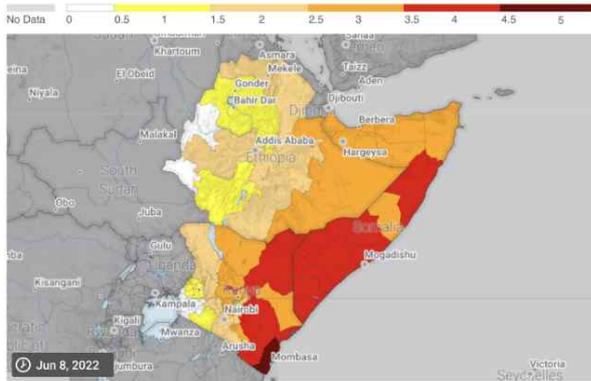
43) Collier, Conway and Venables(2008), “Climate change and Africa,”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4(2), pp. 337-353.

44) ICPAC(2022), “Unprecedented drought brings threat of starvation to millions in Ethiopia, Kenya, and Somalia,” pp. 6-7.

45) *Ibid.*, p. 11.

만 명 증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연속된 가뭄으로 옥수수 생산량은 더딘 성장세를 보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옥수수 수입이 확대되는 추세임.

그림 11.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의 가뭄지수



주: 지도상 색이 어두울수록 심각한 수준의 가뭄을 의미함.  
자료: Gro Intelligence(2022), "How Drought Will Impact Africa's Crop Productio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12. 16).

표 2.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의 옥수수 생산성 및 수입량

(단위: 만 톤)

연도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생산량	수입량	생산량	수입량	생산량	수입량
2016	884.7	0.5	333.9	17.1	6.0	0.8
2017	1048.8	3.8	318.6	132.8	7.7	0.4
2018	1012.0	1.2	401.4	53.0	10.2	0.2
2019	963.6	8.0	358.2	22.8	5.7	2.5
2020	1002.2	10.7	378.9	47.3	7.5	0.3

자료: FAO Stats(2022),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9).

■ 에티오피아에서는 내전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됨.

- 2020년 11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에서 일어난 정부군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 간의 내전으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통화가치가 하락함.<sup>46)</sup>
  - 에티오피아의 내전으로 인해 비르화(ETB)/달러 환율이 37비르(2020년 11월 기준)에서 1년 만에 53비르(2022년 11월 기준)로 70% 가까이 증가하면서 자국 화폐가치가 크게 하락하였음.<sup>47)</sup>
  - 에티오피아는 식량 수입 의존도가 24.8%로 높은 편으로, 통화 평가절하로 인한 수입 식량 물가상승의 영향이 큼.
- 한편 에티오피아 내전은 군사비 지출 확대 및 대외자금 조달 제한 등으로 에티오피아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초래하였고, 이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음.
  - 에티오피아의 2021년 군사비 지출이 GDP의 0.5%인 4억 8,780만 달러에 달했으며, 에티오피아 재무 장관은 2022/2023 회계연도 기준 GDP의 3.4%인 2,314억 비르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sup>48)49)</sup>
  - 에티오피아 내전으로 인해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 선진국이 유무상 원조를 통한 대외자금 조달을 제한함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수립한 2022년 예산의 25%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sup>50)</sup>

46) 에티오피아 내전은 2020년 11월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서 연방군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사이에 발생하였음.

47) Trading Economics(2022), "Ethiopian Bir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8).

48) Trading Economics 기준 2022년 에티오피아의 전쟁 비용 추정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Trading Economics(2022), "Ethiopia Military Expenditu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8).

49) Reuters(2022), "UPDATE 2-Ethiopia sees faster economic growth in 2022/23 with bigger budget defic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6).

50) Quartz(2022), "Hyperinflation in Ethiopia is the product of cascading misstep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8).

#### 4) 남부 아프리카

■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과거 원자재 가격 하락, 통화정책 실패,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함.

- 잠비아는 2014년 구리 가격 하락과 전력부족 문제로 화폐가치가 크게 하락한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증하였음.
  - 아프리카 내 구리 생산량 2위국인 잠비아는 수출 수익의 70%를 구리 수출을 통해 얻고 있으나, 구리 가격이 2014년부터 급락한 데다 중국 내 수요까지 감소하여 외환이 줄어들면서 화폐가치가 크게 하락함.<sup>51)</sup>
  - 2015년 잠비아 화폐 콰차화(ZMW)의 가치는 2014년 대비 49% 급락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7.8%였던 물가상승률은 2016년에 17.9%를 기록해 10%p 이상 상승한 바 있음.<sup>52)</sup>
  - 또한 기후변화로 수력발전(전력공급의 약 11%를 차지)이 위치한 카리바호수(Lake Kariba)의 수위가 낮아져 전력부족 문제로 제조업 등의 활동이 둔화되었고, 공산품 공급이 감소하면서 물가가 상승함.<sup>53)</sup>
- 말라위에서는 환율제도 전환, 재정 적자,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 등으로 2012~16년 기간 20%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함.<sup>54)</sup>
  - 말라위는 2012년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는데, 물가상승률이 2011년 7.6%에서 2년 뒤인 2013년에는 27.3%까지 치솟았음.<sup>55)</sup>
  - 또한 ‘현금 게이트 스캔들(cash-gate scandal)’이라 불리는 대규모의 공적자금 횡령사건으로 인해 해외 예산지원이 끊기면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대량의 화폐를 발행하였고, 이로 인해 화폐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였음.
  - 한편 2015년 말라위에 극심한 가뭄 및 홍수가 발생하여 옥수수 수확량이 2014년 대비 30% 감소하였음.

■ 짐바브웨에서는 통화정책 실패와 자국 통화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상승함.

- 짐바브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 말부터 물가상승률이 치솟기 시작하여 약 2년 뒤인 2020년 7월에 최고치인 837.5%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도 세 자릿수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sup>56)</sup>
- 짐바브웨 정부에서 2019년 2월 달러 부족과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달러를 신규 화폐로 도입함.<sup>57)</sup>
  - 공무원 연봉 상승, 공공부채 증가, 연료 가격 및 전기요금의 상승(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가격 인하의 어려움) 등 만성적인 통화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함.<sup>58)</sup>

51) 구리 가격은 2010년 미터톤당 7,000달러대→2014년 6,000달러대→2016년 4,471달러로 하락함. IMF(2022), "IMF Primary Commodity Pric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8).

52) WB(2022), "Inflation, consumer prices (annual %),"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8); Bloomberg(2022), "Zambian Inflation Accelerates to 6-Year High After Kwacha Slump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8).

53) Emerics(2015), 「경제 잠비아 콰차(Kwacha) 가치하락과 경제 위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8).

54) IMF(2016), "Understanding Inflation in Malawi: A Quantitative Investig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8).

55) WB(2022), "Inflation, consumer prices (annual %) - Malaw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8).

56) Bloomberg(2021), "After Two Years of Three Digits, Zimbabwe Inflation Drops to 5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8).

57) EMERICCS(2019), 「전문가오피니언 짐바브웨의 신규 화폐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8).

58) LSE(2019), "Hyperinflation and distrust in Zimbabw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8).

- RTGS를 유일한 통화로 지정하고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하면서 화폐가치가 급격히 하락했고, 자국 통화  
에 대한 국민의 강한 불신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음.
  - 짐바브웨 국민은 과거(1998~2009년) 월간 인플레이션율이 50%를 초과하는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했기  
때문에 화폐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및 제도적 준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함.<sup>59)</sup>
  - 2009년 복수통화제도를 도입한 후 안정적인 물가상승률(2010~17년 기준 연평균 물가상승률 1%대)을  
유지한 바 있음.<sup>60)61)</sup>

### 3. 각국의 대응 동향 및 인플레이션의 경제·사회적 영향

#### 가. 대응 동향

##### 1) 통화정책

- 2022년 국제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상승으로 아프리카 내 물가상승 폭이 커지고 있어 다수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이 높거나 수요 요인이 큰 국가(에티오피아, 가나, 말라위,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및 통화정책  
신뢰도가 낮거나 자본 유출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통화 긴축을 강화하고 있음.<sup>62)</sup>
  - 아프리카 국가 중 경제상황이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가나에서는 2022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다  
섯 차례에 걸쳐 1,250bp 상향 조정하여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7%로 인상함.<sup>63)</sup>
    - 단기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초에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sup>64)</sup>
  - 나이지리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중앙은행에서 2022년에만 네 차례에 걸쳐 정책금  
리를 500bp 인상하여 12월 16.5%까지 상향 조정함.<sup>65)</sup>
    - 현재 기준금리는 25년래 최고 수준이지만, 물가가 안정되지 않아 2023년 상반기에 추가 금리인상 가능  
성이 있음.
  - 남아공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3~6%를 넘어 7.4%를 기록했으며, 중앙은행에서 2022년 들어 네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225bp 상향 조정하여 12월 기준 6.25%로 인상함.<sup>66)</sup>

59) EMERICCS(2019), 「전문가오피니언 짐바브웨의 신규 화폐 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8).

60) 2009년 짐바브웨 화폐가치 폭락으로 자국 통화를 폐지하고 미국·호주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 일본 엔, 중국 위안, 인도 루피(Rupee), 남아공 랜드(Rand), 보츠와나 풀라(Pula) 등 총 9개의 통화를 사용하는 복수통화제도를 채택하였음. 짐바브웨의 외환보유고는 2010년 7억 3,000만 달러에서 2018년 8,700만 달러로 8년간 6억 4,300만 달러가 급감하였음. WB(2022), "Inflation, consumer prices (annual %) - Zimbabw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26).

61) LSE(2019), "Hyperinflation and distrust in Zimbabw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8).

62) IMF(2022), Regional Economic Outlook Analytical Note: Tackling Rising Inflation in Africa, p. 3.

63) Bank of Ghana(검색일: 2022. 11. 30).

64) Oxford Economics에서는 2024년까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IHS Markit에서는 2023년까지 물가가 높게 유지되다가 2024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65) Central Bank of Nigeria(검색일: 2022. 12. 15).

- DR콩고 중앙은행은 2022년 2월 금리를 7.5%로 한 차례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부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7%를 상회한 두 자릿수로 높아져 12월 다시 8.5%로 상향 조정함.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세파프랑 사용 지역에서도 금리를 상향 조정함.
  - 서부아프리카 중앙은행(BCEAO: Banque Centrale des États de l'Afrique de l'Ouest)은 2022년 6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이후 9월에 또다시 25bp 인상하여 2.5%까지 인상하였고, 중부아프리카 중앙은행(BEAC: Banque des États de l'Afrique centrale)에서도 금리를 4.5%로 상향 조정함.
-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오던 모로코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2022년 9월에 기준금리를 1.5%에서 2%까지 50bp 인상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sup>67)</sup>
- 라이베리아에서는 라이베리아 달러(LRD) 강세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상쇄하면서 중앙은행이 2022년 8월 금리를 한 차례 하향 조정하였고, 앙골라의 경우 유가상승으로 환자(AOA)가 강세를 보이면서 물가상승률이 하락하여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함.<sup>68)</sup>

표 3. 2022년 아프리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현황

국가	인플레이션		기준 금리(%)	금리 인상분(bp)
	물가상승률(%)	기준 날짜		
가나	50.3	2022.11	27	1250
앙골라	15.24	2022.11	19.5	-50
모잠비크	12.1	2022.11	17.25	400
말라위	25.8	2022.11	17.3	530
시에라리온	32.98	2022.10	17	275
나이지리아	21.47	2022.11	16.5	500
라이베리아	7.06	2022. 8	15	-500
이집트	18.7	2022.11	13.25	500
감비아	13.2	2022.11	13	300
기니	4	2022.11	11.5	0
우간다	10.6	2022.11	10	350
잠비아	9.8	2022.11	9	0
케냐	9.48	2022.11	8.75	175
DR콩고	12.19	2022.10	8.5	0
튀니지	9.8	2022.11	7.25	100
남아공	7.4	2022.11	7	325
나미비아	7	2022.11	6.75	300
르완다	13.2	2022.11	6.5	200
에스와티니	5.5	2022.10	6.5	275
탄자니아	4.9	2022.11	5	0
CEMAC	-	2022.11	4.5	100
WAEMU	-	2022.10	2.5	50
모로코	8.1	2022.11	2	50

주: 기준금리가 높은 순으로 나열함.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최근 날짜 기준으로 업데이트 함. 기준 금리는 2022년 12월 기준이며, 금리 인상분은 2022년 1월 대비 변동 상황을 나타냄.  
자료: 각국의 중앙은행 홈페이지(검색일: 2022. 12. 20) 참고.

66) South African Reserve Bank(검색일: 2022. 12. 15); 안성배 외(2022), 「2023년 세계경제 전망」, p. 1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7) 2008년 일시적으로 금리를 3.25%에서 3.5%까지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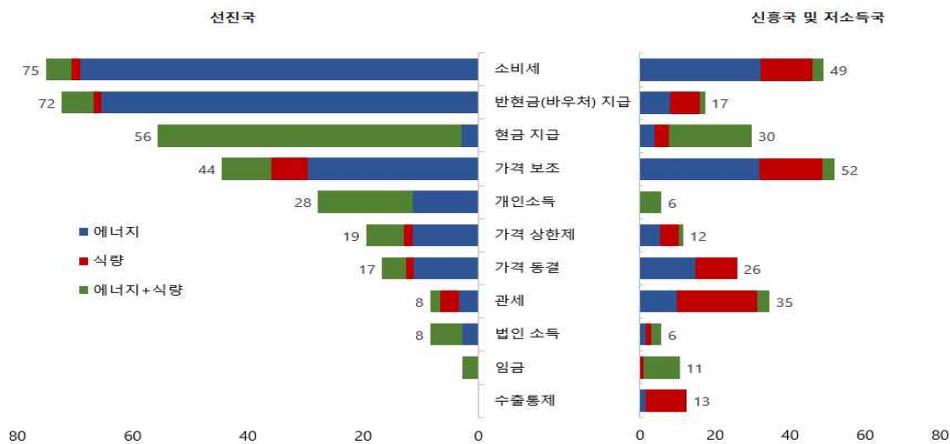
68) 안성배 외(2022), 「2023년 세계경제 전망」, p. 1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 재정정책

- 아프리카 각국에서는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가계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신흥국과 저소득국에서는 주로 보조금 지급, 소비세 감면, 관세 감면, 현금 지급, 가격 동결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sup>69)</sup>
    - 저소득국에서 선진국이나 신흥국 대비 식량 및 에너지 지원정책을 위한 지출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식량 지원정책의 비중이 높음.<sup>70)</sup>
  -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세금 감면 및 유예, 가격 통제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도입했는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2022년에 도입한 식량 및 에너지 물가 안정정책 실행비용은 평균적으로 GDP의 0.9%에 달함.<sup>71)</sup>
    -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큰 국가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 보완적 수단으로 식량 및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는 자원조달에 대한 우려가 있음.<sup>72)</sup>
  - 남아공 정부는 2022/2023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세금 경감 명목으로 52억 랜드(ZAR)를 확보하고, 연료에 대한 세금을 동결함.<sup>73)</sup>
    - 남아공 정부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25.5%로 높은 편이고, 연료세 수입은 GDP의 2%, 전체 세수의 7.4%임.<sup>74)</sup>
  - 나이지리아는 연료가격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연료 보조금 규모는 약 90억 달러로 2022년 정부 예산의 25%를 차지함.<sup>75)</sup>

그림 12. 국가 그룹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대응정책 채택 현황

(단위: %)



주: 2022년 7월 기준임. IMF가 조사한 총 174개국 중 해당 영역에서 에너지 혹은 식량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국가의 비율임.  
자료: IMF(2022), Fiscal Monitor 2022, p. 11.

69) IMF(2022), Fiscal Monitor, p. 11.

70) *Ibid.*, p. 6

71) IMF(2022), Regional Economic Outlook Analytical Note: Building a more food-secure Sub-Saharan africa, pp. 2-3.

72) WB(2022), Africa's Pulse, p. 20.

73) National Treasury Republic of South Africa(2022), Budget 2022, pp. 37-38.

74) GDP 대비 세수 수입 비율은 2021/2022년 기준, 연료 세수 수입 비율은 2019/2020년 기준임. Bridle *et al.*(2022), "South Africa's Energy Fiscal Policies," GSI report, p. 23.

75) PWC(2021), "Highlights of Nigeria's 2022 Budget of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ility," p. 1; Reuters(2022. 7. 22), "Nigeria petrol subsidy seen nearly 70% higher at \$16.2 bln next ye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2).

표 4. 아프리카 국가의 에너지 물가 안정정책(2022년)

국가	정책명	분야/형태	내용
케냐	연료 보조금	운송/보조금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 대한 보조금으로 Petroleum Development Levy Fund에서 67억 실링 지원
	전기세 감면	전기/세금	2022년 1월 가계 전기세 부담 완화를 위해 Kenya Power and Lighting Company(KPLC)에 대한 재정 지원
	취사용 가스 소비 지원	에너지/보조금	2022년 7월부터 취사용 LPG에 대한 부가세 감면 (16%→8%), 보조금 지원
모로코	Butane subsidy scheme 예산 증대	전력/보조금	부탄가스 보조금 예산 52% 증대
	교통 분야 보조금	교통/보조금	2022년 7월부터 자동차 보조금 지원
남아공	연료 세금 동결 및 감축	교통/세금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동결 2022년 4~5월 리터당 2.5랜드 세금 감면
나이지리아	Premium Motor Spirit(PMS) 보조금	운송/보조금	연료 보조금 제도 철폐를 2023년으로 연기하고, 2023년 4조 나이라 규모의 예산 확보
탄자니아	연료 보조금	교통/보조금	2022년 6월부터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1천억 실링의 예산 수립
	연료 세금 감면	교통/세금	2022년 3~5월 간 휘발유·경유·등유 등에 리터당 100실링의 세금 감면
카메룬	연료 보조금	교통/보조금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주: 2022년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관련 보조금 및 세금 감면 정책만 포함.  
자료: IEA, [iea.org/policies](http://iea.org/policies)(검색일: 2022. 12. 14).

■ 그러나 식량 및 에너지 가격 통제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나이지리아, 케냐, 튀니지 등에서 최근 보조금 폐지 또는 감액 정책을 발표함.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직·간접적인 연료 보조금은 전체 GDP의 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sup>76)</sup>
  - 이는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직접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으로 환경, 보건, 기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계산한 수치로, 2015년 기준 260억 달러 규모임.
  - 경제활동과 에너지 소비 수준이 높은 편인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남아공, 잠비아 등지의 2015년 기준 연료 보조금은 10억 달러를 상회함.<sup>77)</sup>
- 나이지리아의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저치로 감소하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부하리(Buhari) 대통령은 2023년 상반기까지만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함.
  - 외화 수입의 80%를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나이지리아는 2022년 9월 OPEC 목표치보다 66만 배럴이 부족한 역대 최저치인 일일 114만 배럴을 생산하였고, 원유 생산이 감소하면서 정부의 수입도 감소하여 2022년 1/4분기 정부 수입은 목표치보다 49% 부족한 38억 달러로, 같은 기간 정부의 채무 원리금 상환 요구액인 44억 달러보다 적음.<sup>78)</sup>
  - 반면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보조금 부담이 커져 2023년 재정 지출은 18.4% 증가한 47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sup>79)</sup>

76) Whitley and van der Burg(2015), Fossil Fuel Subsidy Reform in Sub-Saharan Africa: From Rhetoric to Reality. New Climate Economy, London and Washington, DC, p. 7.

77) *Ibid.* p. 11, 28.

78) Anthony Osae-Brown(2022. 7. 22), "Nigeria Debt Costs Exceed Revenue as Oil Income Slumps," *Reut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2).

- 케냐의 루토(Ruto) 신임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9월 취임 직후 휘발유 보조금을 폐지함.
  -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낮은 케냐는 2022년 정부 예산의 8.8%를 연료 보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9월 대통령 취임 직후 휘발유 보조금을 폐지함.<sup>80)</sup>
    - \* 다만 제조·유통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유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대한 보조금은 유지하되 50% 삭감함.<sup>81)</sup>
  - 케냐에서는 2022년 10월에 식품 가격이 15.8%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9.6%에 달해 정부에서는 주식인 옥수수 가격의 안정을 위해 8월부터 옥수수 구매 보조금을 시행하였고, 이는 정부 예산의 약 2.5% 규모에 달함.<sup>82)</sup>
- 튀니지는 재정 적자 해소 목적으로 IMF로부터 4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기 위해 2023년부터 향후 3년간 보조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힘.
  - 튀니지의 재정 적자는 지난 10년간 48%로 증가하였는데, 2022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9.7%에 달함.<sup>83)</sup>
  - 2022년 튀니지의 보조금 규모는 전년대비 약 1.7배 상승한 16억 4,000만 달러로, 이는 정부 재정의 약 10%에 해당함.<sup>84)</sup>

## 나. 인플레이션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 1) 경제성장을 둔화

- 높은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경제성장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글로벌 금리 인상, 기후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22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1.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sup>85)</sup>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러-우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으나, 높은 물가상승률이 불려올 국내 소비 둔화, 선진국의 금리 인상이 경제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원자재 수출국의 경우 2022년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았으나, 하반기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함.
  - 원자재 순수입 지역인 동아프리카공동체(EAC)와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WAEMU) 국가에서 2023년 경상수지 적자 수준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4.7%에서 2022년 3.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나이지리아와 남아공을 제외하면 4.3% 수준임.<sup>86)</sup>

79) Onuah and Dzirutwe(2022. 10. 7), "Nigeria's budget deficit will widen to 4.78%, fuel subsidy to end," *Reut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3).

80) Helen Nyambura and David Herbling(2022. 9. 15), "Kenya's president follows up on pledge to cut money-guzzling subsidies," *Bloomber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8).

81) 정민지(2022),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Vol. 5 No. 32*, p.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2) Helen Nyambura and David Herbling(2022. 9.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8).

83) EIU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8).

84) Reuters(2022. 6. 7), "Tunisia to start food and energy subsidy cuts next ye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8).

85) IMF(2022. 10. 11),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 참고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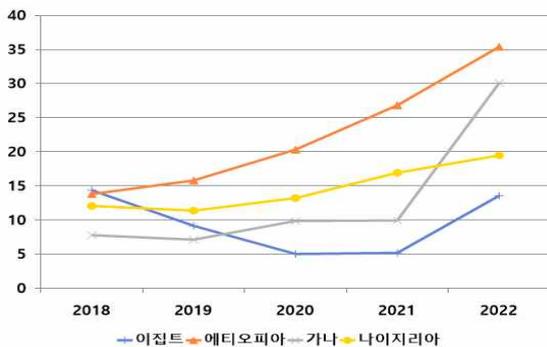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GDP 규모의 45%를 차지하는 나이지리아 및 남아공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18.9%와 6.7%로 각국의 물가상승률 상한선인 9%와 6%를 상회하며, 2022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전년대비 0.4%p와 2.8%p 감소한 3.2%와 2.1%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만큼 원유 수입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5.6%에서 2022년 3.8%로 하락한 반면, 원유 가격 상승에 힘입은 원유 수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3%p 상승한 3.3%임.
- 2022년 북아프리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5%이지만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집트를 제외하면 -0.2%로 떨어짐.<sup>87)</sup>
  - 물가상승률이 163%에 달한 수단은 마이너스 성장(-0.3%)을 하였고, 물가상승폭(전년대비 4.8%p)이 가장 큰 모로코에서는 경제성장률이 2021년 7.9%에서 2022년 0.8%로 북부 지역에서 최대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 2) 빈곤을 증가

-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극빈곤층에 속한 아프리카 인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930만 명 증가한 4억 6,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sup>88)</sup>
-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국가들은 2021~22년에 걸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질가처분소득이 급감함.
  - 가나, 나이지리아, 수단 등은 전년대비 실질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으며, 이집트,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등의 경우 소득이 증가했으나 증가폭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그림 3-4 참고).<sup>89)</sup>

그림 13. 아프리카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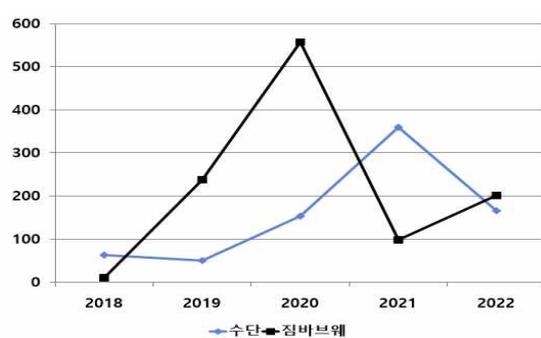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EIU Database(검색일: 2022. 12. 8).

그림 14. 수단과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 추세

(단위: %)



주: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EIU Database(검색일: 2022. 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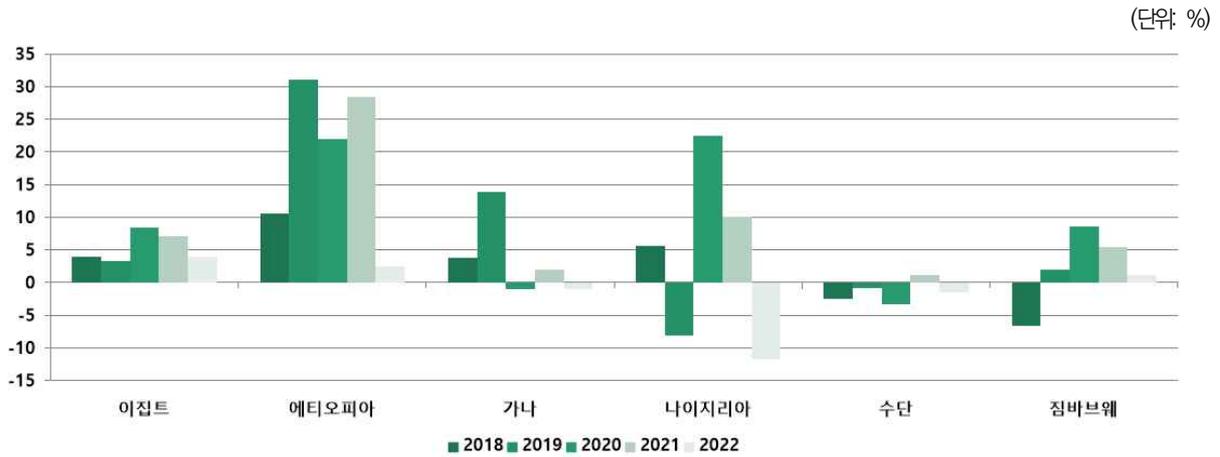
86) Ibid

87) 내전으로 물가상승률이 -18.5%인 리비아를 추가적으로 제외할 경우 북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2.4% 수준임.

88) Cotterill, Schipani and Adeoye(2022. 9. 13), "Global inflation pushes millions of Africans back into poverty," Financial Tim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8).

89) 실질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연금, 이자 등의 세부담을 제외한 소득으로, 물가상승률이 높더라도 국가별로 일시적인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으로 인해 경도가 다르게 나타남.

그림 15. 주요국의 실질가처분소득 추세



주: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EIU Database(검색일: 2022. 12. 8).

■ 물가상승의 영향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물가상승이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소비 바스켓 내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물가상승이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저소득국에서 빈곤인구 비중도 증가세를 보임.
  - 부룬디('20년: 92.6% → '21년: 92.7%), 말라위('20년: 88.6% → '21년: 88.7%), 중앙아프리카공화국('20년: 85.7% → '21년: 86.3%), 차드('20년: 68.9% → '21년: 69.8%), 에티오피아('20년: 29.9% → '21년: 30.1%)<sup>90)</sup>
- 중소득국인 남아공에서도 물가상승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남.
  - 남아공에서는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을 경험한 2008년 식량위기 이후 소득 그룹간 격차가 커져 2021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비중은 국민총소득의 60.1%에서 65.4%로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 50%의 경우 8.7%에서 5.8%로 감소함.<sup>91)</sup>

### 3) 식량안보 위협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주요 작물의 공급량 감소, 식품 및 농업 투입물 가격 상승,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실질소득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아프리카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 식량과 농업 투입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프리카의 식량 가격 수용성(Affordability)도 악화됨.
  - 2020~22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식량 가격은 23.9% 상승하여 식량 소비 바스켓 비용이 8.5% 증가함.<sup>92)</sup>

9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Data Explor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8).

91) 소득 상위 10%의 경우 식량 및 비알코올 음료가 소비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6%이고, 소득 하위 50%의 경우 50.3%를 차지함. World Inequality Database, "South Afric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8).

92) Okou, Spray, Unsal(2022), "Africa Food Prices Are Soaring Amid High Import Relia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5).

- 차드, 르완다, DR콩고, 수단, 말라위,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아프리카 전역에서 2022년 식량 수용성 지수가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식량 수용성 지수 기준 하위 20개국 중 16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임.<sup>93)</sup>
- 전체 인구의 87.1%(2021년 기준)가 빈곤층인 부룬디의 경우 식량 가격 변동 수준이 가장 불안정한 국가로, 식량가격변동지수가 최대폭으로 떨어짐.
- 소비 바스켓에서 식품의 비중이 높아 2019년 기준 식품 및 비알콜 음료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23개국이며, 50%가 넘는 국가는 11개국임.<sup>94)</sup>
- 상투메 프린시페와 남수단은 식품 및 비알콜 음료의 비중이 70%를 상회했으며, 수단과 잠비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가 각각 62%, 53.5%, 53.5%, 51.8%로 뒤를 이음.

표 5. 주요국 국제 식량안보 지수(GFSI)의 식량가격변동지수

(단위: 지수)

국가	2020년	2022년	국가	2020년	2022년	국가	2020년	2022년
부룬디	100.0	48.0	시에라리온	56.0	14.5	나이지리아	31.5	0.0
잠비아	48.0	0.0	모잠비크	83.5	45.5	보츠와나	93.0	64.5
토고	100.0	57.0	니제르	100.0	65.0	베냉	100.0	75.0

주: 평균 식량 가격의 변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 '100'일 경우 가격 변동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함.  
자료: Economist, "Global Food Security Index," Database(검색일: 2022. 12. 12).

■ 인플레이션 심화로 아프리카 내 빈곤을 증가와 함께 식량 불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이후 식량 불안이 가장 심화된 지역으로, 2022년 인구의 12%인 1억 2,3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 상황에 놓인 것으로 추산됨.<sup>95)</sup>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4 이상의 국가에서 '심각한' 식량 위기단계 이상에 처한 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수단은 현재 50% 이상의 인구가 '심각한' 식량 위기 이상 단계에 속함.<sup>96)</sup>
  - 2021년에 이미 인구의 1/5 수준인 2억 8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 상태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사헬 국가와 앙골라, 케냐, 라이베리아, 베냉 등에서 앞으로 식량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sup>97)</sup>
  -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친 아프리카의 불 지역을 포함한 동부 지역에서는 2023년 초 에티오피아, 케냐 및 소말리아에서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하는 인구수가 2,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임.

93) Economist의 국제식량안보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는 수용성(Afford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품질 및 안전(Quality and Safety), 지속가능성 및 적응(Sustainability and Adaptation)의 네 가지 항목을 고려함. 수용성은 소비자가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수치가 높을수록 수용성이 높음. Economist, Global Food Security Index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2).

94) IMF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2). DR콩고, 에리트레아, 가나, 리비아에 대한 통계는 부재함.

95) IMF(2022),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October 2022, p. 5; FAO, IFAD, UNICEF, WFP and WHO(2022), pp. 22-26.

96) 데이터가 없는 5개국을 제외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4개국을 포함함. GAFS(Global Alliance for Food Security)는 다음과 같이 식량 위기를 5단계로 구분함: ① 없음(minimal/none) ② 경고(stressed) ③ 심각(crisis) ④ 응급(emergency) ⑤ 기근(catastrophe/famine).

97) Bavier, Sheikh, Ovaska and Bhandari(2022. 12. 14), "Africa's food crisis is the biggest yet-five reasons why," Reut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9).

그림 16. '심각' 이상 단계 국별 인구 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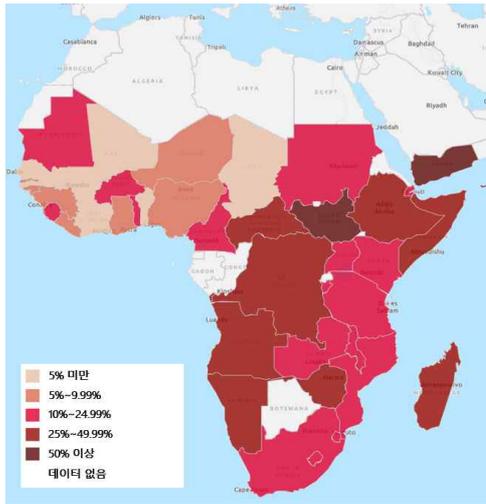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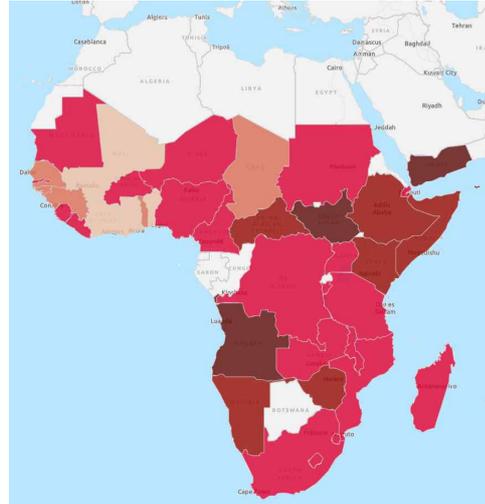


그림 17. '심각' 이상 단계 국별 인구 비중 전망



주: 1) IPC(Integrated Food Security Phase Classification) 3단계인 '심각' 단계 이상에 처한 인구 비중.  
2) 현황은 2022년 8월 기준이며 전망은 2022년 11월~2023년 4월 기준임.  
자료: Global Alliance for Food Security, "Global Food and Nutrition Security Dashboa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2).

#### 4) 사회 불안

##### ■ 2007~08년 식량위기 당시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으로 아프리카 내 다수의 국가에서 시위와 폭동이 발생했음.

- 2007~08년 물가상승 시기에 16개국에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시위하는 폭동이 발생함.
  -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등 북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네갈, 모잠비크, 부르키나파소, 짐바브웨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도 다수의 폭동이 발생하였고, 2008년 2월 카메룬에서 발생한 시위에서는 최대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sup>98)</sup>
- 2011년 물가상승 문제에 사회·정치적 권리에 대한 불만까지 더해져 '아랍의 봄'으로 이어진 시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집트에서만 약 7천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알제리와 튀니지에서도 각각 800명과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함.<sup>99)</sup>
- Bernaza and Lee(2013)에 의하면 2008년 당시 식량 폭동이 발생한 국가들은 빈곤율, 도시화, 실업률과 시민적 자유지수(Civil Liberties Index)가 상대적으로 높고 정치적 권리지수(Political Rights Index)는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sup>100)</sup>

##### ■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정치 및 사회적 불안이 증대되어 소요사태 발생 등의 위험이 더욱 높아짐.

- 전 세계적으로 2022년에만 150여 개국에서 식량, 에너지, 생활비 상승에 반발하는 시위가 발생하였고, 아프리카에서도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우간다, 튀니지 등에서 시위가 발생함.

98) World Bank, "Food Price Crisis Observatory Food Riot Radar Datas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2).

99) *Ibid*

100) Juliz Berazneva and David R. Lee(2013), "Explaining the African food riots of 2007-2008: An empirical analysis," *Food Policy*, 39, pp. 28-39.

- 튀니지에서 2022년 9월 수백 명이 수도에 집결하여 식량 부족 및 높은 식품 가격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여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음.
- 남아공에서도 2022년 8월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고와 고질적인 전력난에 항의하는 파업과 시위가 발생함.<sup>101)</sup>
-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생계 부담으로 시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시위·소요 발생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
- 시민소요지수(Civil Unrest Index)는 세네갈, 이집트, 케냐, 튀니지 등 주로 중소득국에서 높음.<sup>102)</sup>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은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져 쿠데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아프리카에서는 2008년 식량위기 이후 2015년까지 13번의 쿠데타가 발생했고, 팬데믹 이후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서 2021년에만 차드, 기니, 말리, 수단에서 쿠데타가 발생함.<sup>103)</sup>
- 이미 쿠데타 시도가 있었거나 파벌주의가 심한 가봉, 수단, 기니,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짐바브웨가 향후 쿠데타 발생 위험이 높은 국가로 지적됨.<sup>104)</sup>

표 6. 국가 구분에 따른 영역별 정치적 안정성 지표(2022년)

구분	쿠데타 경험 있는 국가	쿠데타 경험 없는 국가	OECD
체포 및 구금	1.94	4.33	7.41
시민 소요	2.44	5.29	6.20
부패	2.11	4.34	7.37
민주주의 거버넌스	3.43	5.91	8.86
표현의 자유	1.62	4.76	7.57
정부 안정성	3.81	8.07	9.25
빈곤	2.11	5.45	8.36
치안 및 인권	2.38	5.03	8.05

주: 지수는 각 그룹별 2022년 2/4분기 지수의 평균값으로, 0~2.5 **최고 위험**, 2.5~5.0 **높은 위험**, 5.0~7.0 **보통 위험**, 7.0~10.0 **낮은 위험**으로 구분함.

자료: Verisk Maplecroft(20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3).

## 4. 전망 및 시사점

- 아프리카의 인플레이션은 2023년부터 하락세를 유지하다 2025년에야 팬데믹 이전 수준을 되찾을 전망이다.
- 국제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은 2022년 정점을 찍고 2023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의 공급망 훼손으로 향후 2년간은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2022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에 소폭 하락하여 6%대를 기록한 후 2024년 이후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sup>105)</sup>

101) 「남아프리카공화국,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난과 사회적 위기 심화」, EMER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5).

102) Kinnear and Blanco(2022), "Cost of living crisis inflames civil unrest risks in emerging marke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5).

103) Humphery-Smith and Bovcon(2022), "Anatomy of a coup: Social and governance red flags common in vulnerable count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5).

104) *Ibid.*

- 2022년 3/4분기에 들어서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선진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하방 압력 증대로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물가 진정 효과는 하반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어 향후 2년간은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2023년 물가상승률은 2022년 대비 감소하여 6%대를 기록한 후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2025년에 이르러야 팬데믹 이전 수준인 4%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됨.<sup>106)</sup>
  - 향후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프리카의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보이나, 달러 강세 및 국내 통화 약세기조가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2023년에는 동부 지역에서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고, 중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sup>107)</sup>
  -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2023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2023년 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높아지고, 역내에서 물가상승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
  - 중부 지역은 2022년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2023년 물가상승률이 소폭 증가했다가 2024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년간 동부, 서부, 남부 지역 순으로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sup>108)</sup>
-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의 경기회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늦어지고 있고,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인플레이션 통제와 경제성장 간의 균형 유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함.
  -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체로 공급 측면의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통화 긴축으로 오히려 식량 불안 등의 사회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며, 현재는 대외 요인의 변수가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음.<sup>109)</sup>

■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긴축 강화와 이에 따른 달러 강세로 아프리카에서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부채 부담이 가중될 전망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통화긴축 정책, 경기침체 우려 속 안전자산 선호 현상,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 증가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어 아프리카 국가의 통화 약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sup>110)</sup>
  -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개도국에서는 해외로 자금 유출이 증가하게 되어 환율이 불안정하거나, 외환보유고가 적은 국가에서 통화 약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어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도국의 국제 스프레드가 확대되어 부채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음.

105) 안성배 외(2022), 「세계경제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p.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6) 2023년 예측치의 증및값 기준으로 저자 작성. IMF(2022),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Database(검색일: 2022. 12. 14).

107) 2023년 예측치의 증및값 기준으로는 서부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으나 지역 내 국가간 편차가 크고, 중부 지역은 산술평균값으로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가장 낮고 국가별 편차는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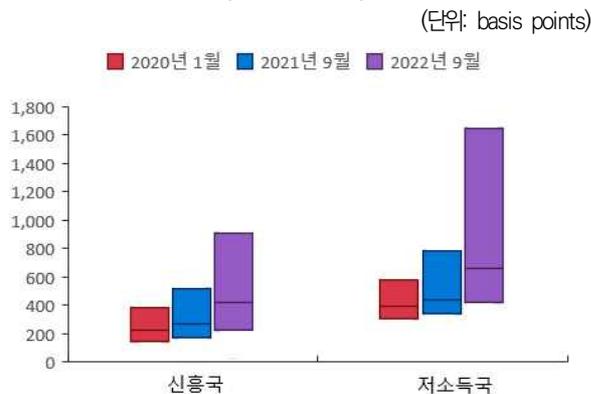
108) IMF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예측치의 증및값을 기준으로 저자 계산.

109) IMF(2022), Regional Economic Outlook Analytical Note: Tackling Rising Inflation in Africa, p. 3.

110) 미 연준에서 6월부터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이후 12월에 또다시 빅스텝으로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2022년 들어서만 일곱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2023년 초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Duggan(2022. 12. 14), "December Fed Meeting: FOMC Ends 2022 With A Smaller Rate Hike," *Forb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9); 안성배 외(2022), 「2023년 세계경제 전망」, p. 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2년 들어 저소득국의 평균 국채 스프레드(sovereign spread)가 50% 이상 확대되었고, 아프리카 내 잠비아(1687→3,929bp), 가나(570→2,190bp), 모잠비크(593→1,095bp), 이집트(455→905bp), 가봉(313→865bp), 앙골라(569→841bp), 남아공(332→430bp), 모로코(154→328bp)에서 크게 확대됨.<sup>111)</sup>
- 성장 약세로 정부 세입이 줄어들고, 국제적인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여 정부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입 비용 증가로 자본시장 접근이 더욱 어려워져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임.
- 2007~20년 사이 이집트, 남아공,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 가봉, 앙골라,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한 21개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한 바 있어 정부 부채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sup>112)</sup>
- 2021년 기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채무는 GDP 대비 58.6%로 상승했고, 정부는 재정수입의 16.5%(2010년 5%)를 외채 상황에 쓰고 있음.<sup>113)</sup>
- 정부 부채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아프리카의 주요 6개국(나이지리아, 가나, 에티오피아, 케냐, 잠비아, 모잠비크)에서는 정부 부채 규모가 GDP의 77%에 달함.<sup>114)</sup>
- 아프리카 IDA 적격 38개국 중 8개국이 채무 곤경(Debt distress) 상태이고, 13개국은 높은 위험 수준임(표 7 참고).
- 경기부양 정책에 이어 물가안정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재정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재정건전화 요구되고 있으나, 2023년 선거를 앞둔 국가에서는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국가(차드, 가봉,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짐바브웨)에서는 재정긴축이 어려운 상황임.<sup>115)</sup>

그림 18. 신흥국과 저소득국의 국채 스프레드 (2020~22년)



주: 49 신흥국, 9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중간선은 중위값을 나타내며, 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1사분위 수와 3사분위 수 구간을 나타냄.  
자료: IMF(2022), Fiscal Monitor, p. 6

표 7. 아프리카 IDA 적격 국가 부채위기 상태 (2022. 11. 30 기준)

상태	국가
채무 곤경	차드, 콩고, 말라위, 모잠비크, 상투메 프린시페, 소말리아, 잠비아, 짐바브웨 (8개국)
고위험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지부티,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케냐,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남수단 (13개국)
중위험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DR콩고, 기니,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레소토,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16개국)
저위험	-

주: 에리트레아는 평가내용이 없어 제외함.  
자료: IMF 홈페이지, "List of LIC DSAs for PRGT-Eligible Countries"(검색일: 2022. 12. 20).

111) 괄호 안은 2020년 1월→2022년 9월 스프레드 수치임. IMF(2022), Fiscal Monitor October 2022 Database.  
112) Smith(2022), "AFRICA'S HARD-WON MARKET ACCESS," IMF,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4).  
113) World Bank(2022. 10. 4), "African Governments Urgently Need to Restore Macro-Economic Stability and Protect the Poor in a Context of Slow Growth, High Infl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8).  
114) Verisk Maplecroft(2022), Smith(2022. 12. 1), "Fed hikes and a stronger dollar are fueling risks of political instability in Africa," CNB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3)에서 재인용.  
115) EISA 2023 African Election Calendar, <https://www.eisa.org/calendar2023.php>(검색일: 2022. 12. 13).

■ 한국정부와 아프리카 진출 한국기업은 각국의 경제상황과 정치사회적 불안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 대응전략과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긴밀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아프리카 지역의 인플레이션 심화가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한국정부는 아프리카 내 중점협력국인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세네갈, 이집트에서 물가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협력사업 추진 시 수원국의 거시환경 변화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설·제조업뿐만 아니라 최근 에너지·ICT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이 속도를 내는 만큼 투자 진행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별 거시경제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업의 투자가 많은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등에서 인플레이션 심화와 더불어 폭력시위 발생 등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sup>116)</sup>

■ 현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소득국 및 취약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요구에 따라 한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식량 원조와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관련 개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제 식량 가격 불확실성 증가 △경제위축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빈곤층 증가 △기후변화로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안보 전망은 어두움.
  - 식량안보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 하위 20개국 중 16개국이 아프리카에 속함.<sup>117)</sup>
-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는 3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을 1년간 지원하기 위해 5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됨.<sup>118)</sup>
  - EU는 2억 1천만 유로 규모의 인도적 지원 패키지를 통해 식량 불안이 가장 심한 15개국(그중 아프리카 국가인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남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9개국 포함)을 지원할 계획임.<sup>119)</sup>
- 한국정부는 2022년 G20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최빈국과 취약국에 대한 식량 지원 확대가 필요함.<sup>120)</sup>
  - 아프리카 내 나이지리아 북부와 사헬 지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등 무력 분쟁을 겪고 있는 취약국에서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 한국은 2016~20년 사이 식량 긴급지원 규모를 3배 이상 증가시켜 전체 원조 규모 대비 2%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나, 이는 여전히 G20 평균인 4%보다 낮은 편으로 확대 여지가 있음.<sup>121)</sup>

116) 1980~2016년까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내 한국기업의 투자 상위국은 남아공, 나이지리아, 가나임.

117) 113개국을 대상으로 한 식량안보지수 순위 기준이며, 시에라리온, 마다가스카르, 부룬디, 나이지리아, 수단, DR콩고, 차드, 잠비아, 앙골라, 에티오피아, 기니, 토고, 니제르,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 순으로 식량안보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Economist(2022), Global Food Security Index 20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27).

118) IMF(2022), "Tackling the Global Food Crisis: Impact, Policy Response, and the Role of the IMF," p. 13.

119) 글로벌 식량안보에 대한 EU의 지원은 2020~24년 기간 80억 유로로 증가함. European Commission(2022. 11. 14), "G20: €210 million in food assistance for most vulnerable worldwid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27).

120) 한국정부는 G20 정상회의에서 식량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식량 원조와 스마트 농업기술 관련 ODA 확대를 약속함.

121) G20 회원국은 주로 분쟁 국가를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차원의 긴급 식량지원에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하고 있음. OECD Statistics

- 또한 아프리카 기후회복력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기반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sup>122)</sup>
  - 기후변화의 피해가 가장 큰 아프리카에서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조기경보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 분야의 탄소배출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강점을 살린 스마트 농업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의 경우 지역과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가 요구됨.

■ 세계경제의 파편화 속에서 신흥시장이자 경제 안보 파트너로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도 외교 및 경제협력 다변화 필요성에 따라 아프리카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세계경제의 파편화가 심화되고 에너지 위기로 인해 그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아프리카가 보유한 풍부한 자원과 인구, 지정학적 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주요국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EU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대안 공급원이자 그린 전환 목표 달성 파트너로 천연가스, 수소 및 재생에너지, 그린 광물 분야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sup>123)</sup>
- 미국은 2022년 12월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아프리카 파트너십(US-Africa Partnership)’을 발표하는 등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새롭게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정부는 아프리카의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로 시스템 강화, 포용적 글로벌 경제 구축, 인권 존중 및 평화와 안보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향후 3년간 5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힘.<sup>124)</sup>
- 프랑스, 러시아, 중국도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아프리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프랑스 대통령은 재선 후 첫 해외 순방으로 2022년 7월 카메룬, 베냉, 기니비사우를 방문하여 안보, 기술, 군사 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는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됨.<sup>125)</sup>
  - 러시아는 냉전 시기부터 시작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군사부문에서 여러 아프리카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집트, 콩고공화국, 우간다, 에티오피아를 차례로 방문하여 무역 및 투자, 식량 및 농업, 에너지, 군사 부문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함.<sup>126)</sup>
  - 아프리카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채권자인 중국은 2021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17개국의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함.
- 한국도 외교 다변화와 교역 및 투자 다각화 차원에서 아프리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계획한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함.

데이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22) 강문수 외(2022), 『기후변화에 따른 아프리카-중동의 식량안보 위기와 한국의 협력방안』(발간 예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하여 작성.  
 123) 한선이, 김예진(2022),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따른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 가능성 및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pp. 19~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4) The White House(2022. 12. 15), “Vision Statement for the U.S.-Africa Partnership,” “U.S.-Africa Leaders Summit: Strengthening Partnerships to Meet Shared Priorit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27).  
 125) 한-아프리카재단(2022. 8. 19), 「러시아-프랑스-미국의 아프리카 순방 일정과 성과」, 아프리카 위클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17).  
 126) *Ibid*.

-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한국이 보유한 경제발전 경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발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KIEP**